

2023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의 사회적 갈등 이해와 조명을 위한 질적 연구의 역할과 가능성

2023

- * 일시: 2023년 4월 22일(토) 09:30 ~ 18:00
- * 방식: 대면 학술대회
-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 * 주최: 한국질적탐구학회
- * 후원: 이화여자대학교, 아카데미프레스



한국질적탐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Inquiry

한국의 사회적 갈등 이해와 조명을 위한 질적 연구의 역할과 가능성

한국질적탐구학회 2023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다양한 양상과 차원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다름과 입장의 차이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는 인종, 종교, 언어, 세대,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 집단과 개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합니다.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 새로운 주류 계층이 등장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소외되는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은 해소되기보다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화합과 포용 보다는 분열과 대립의 깊은 골로 빠져드는 경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갈등으로 고통받는 집단과 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질적탐구학회는 “한국의 사회적 갈등 이해와 해소를 위한 질적연구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회원님과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 개요

1. 행사명: 2023년도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 학술대회
2. 행사일: 2023년 4월 22일(토) 09:30 ~ 18:00
3. 운영방식: 대면
4.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5. 주제: 한국의 사회적 갈등 이해와 조명을 위한
질적 연구의 역할과 가능성

2023. 03.

한국질적탐구학회 학술위원장 정정훈
한국질적탐구학회 회장 이동성

2023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안)

<Pre-conference 워크숍> 일시: 2023년 4월 21일(금) 16:00 - 18:00 / 방식: ZOOM 비대면 진행

주제	질적연구의 철학적, 실제적 기초 조재성 (광주교육대학교)	질적연구 논문 작성법 정상원 (춘천교육대학교)	컴퓨터를 활용한 질적 코딩의 주요전략과 노하우 권향원 (아주대학교)	질적 글쓰기 이재영 (한국교원대학교)
----	--	--	--	-----------------------------------

<춘계 학술대회> 일시: 2023년 4월 22일(토) 09:30 - 18:00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오전 프로그램]				
09:30 - 09:40	개회사(이동성, 한국질적탐구학회장) 및 축사(황규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장)			[사회] 임진선 (우석대학교)
09:40 - 10:20	[기초 강연 I] 갈등조정자로서 질적 연구자와 브리콜라주 (김영순, 인하대학교)			
10:20 - 11:00	[기초 강연 II] 한국 세대 간의 갈등 이해 (최선헌, 이화여자대학교)			
11:00 - 11:20	감사패 수여 및 제1회 KAQI 박사학위논문상 시상			
11:20 - 11:30	휴식			
11:30 - 12:10	[화로정담] 한국 사회 차별 언어 연구의 몇 가지 문제 (이정복, 대구대학교)	[사회] 정정훈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 양성 심포지엄] 사례관계 기반 질적 연구자 되기 (이동성, 전주교육대학교)	[사회] 최동주 (전주대학교)
12:10 - 13:30	점심식사 및 이사회			

[오후 프로그램]				
	세션 1 청(소)년/가족 (좌장 배성아, 토론 정가윤)	세션 2 젠더 (좌장 김명찬, 토론 이명화)	세션 3 노인/세대 (좌장 홍영숙, 토론 박성희)	신진연구자 특별 세션 (좌장 정정훈, 토론 이동성)
13:30 - 14:40	- 부모의 자녀 학대를 발견한 보육 교직원의 아동학대 신고과정 경험 연구 심진아(명지대학교) - 밀레니얼 세대 어머니와 어린이집 원장의 시선: 어머니됨과 영유아 양육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남현정(명지대학교) - 20대 미혼 남성의 부성 담론에 관한 전환학습: 새로운 아버지상 추구하기 김재윤(한국교원대학교)	- 성 소수자를 상담한 상담자 경험에 대한 질적메타 분석 박경자, 김명찬 (인제대학교) - 성 소수자 가족 경험에 관한 질적메타분석 김정숙, 김명찬 (인제대학교)	- 생산적 활동을 유지하는 초고령 노인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유정인(단국대학교) - 한국의 백세인,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사는가?: 거주유형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정화(전남대학교) - 60대 노인의 박물관 활동을 통한 자기 성장에 관한 연구 오명숙(성공회대학교)	- 그래픽 노블과 삶에 대한 예술적 탐구 하일(진영대창초등학교) - 마을학습 교육과정의 전개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권다남(부산대학교) - 중학생의 뇌교육 기반 체인지 메이커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박은주(창덕여자중학교)

14:40 - 14:50	휴식 및 이동			
14:50 - 16:00	세션 4 노동과 여가 (좌장 임진선, 토론 서광봉)	세션 5 다문화/이민 (좌장 정상원, 토론 조재성)	세션 6 교육/학교 (좌장 이미정, 토론 한희정)	세션 7 장애 (좌장 김동민, 토론 소혜진)
	- 학생운동 선수의 여가 탐색 이철웅(서울시립대학교) - SNS 댓글 작성에 대한 인식 고찰 한지훈(연세대학교) - 중등교육에서의 여가 교육 방향과 공간조성 김찬울(작전중학교)	다문화를 대하는 교사의 경험적 인식의 실체와 반응 양상 탐색 이정표 (강원도교육연구원), 김준(천전초등학교) - 경계 속의 삶: 한국에서의 다문화 아동의 성장경험 황철형(동면초등학교), 김희선 (해밀아동청소년발달센터) - 중국 유학생들에게 한국 대학원 유학 경험이 가지는 의미 탐구 이지은(경북대학교)	- 학부모의 고소를 경험한 교사의 비판적 자문화 기술지 김기홍(한국교원대학교) - 교권침해를 경험한 초등학교 교사의 회복과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장세린(전라북도교육청)	- 장애 내러티브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가? 진현선(한국교원대학교) - 중증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로 살아감에 대한 질적 연구 류수민, 한영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 발달 장애 형제를 둔 음악치료사의 성장 경험에 관한 예술기반 자문화 기술지 이지은(전주대학교)
16:00 - 16:10	휴식 및 이동			

[질적연구방법론 워크숍]					
16:10 - 18:00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홍영숙 (중원대학교)	생애사 연구 이동성 (전주교육대학교)	자문화기술지, 어떻게 쓰게 되는가? 김명찬 (인제대학교)	질적 연구를 위한 철학의 지평 넓히기: 들뢰즈 성기현 (한림대학교)	포토보이스 오영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Pre-conference 워크숍 개요 (4/21 금요일 16~18시)

워크숍 A

질적연구의 철학적, 실제적 기초

조재성(광주교육대학교)

조재성은 진주교육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교육과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광주교육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 연구 분야는 교육과정, 교육과정개발, 창의적체험활동, 교사교육 등이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질적연구와 실행연구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질적탐구학회, 초등교육학회 등에서 교육과정 및 질적연구를 주제로 다수의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저서로는 「질적연구 아틀라스: 열다섯 가지 성공전략(2019)」, 「실행연구: 이론과 방법(2016)」이 있으며, 대표 논문에는 「Beyond public schooling: Innovative approaches of shadow education for gifted education in South Korea(2020)」, 「심층면담 가이드 개발에 관한 방법적 탐구(2019)」 등이 있다.



질적연구의 위상과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질적연구를 활용한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적연구에 입문하고자 하는 초보 연구자를 위하여 질적연구의 과정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안내는 부족합니다.

이에 본 워크숍은 질적연구에 관심이 있거나 학위 논문의 방법론을 질적연구로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질적연구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질적연구의 중요한 특징과 목적, 현장 작업을 통한 자료 수집, 그리고 질적 코딩으로 대표되는 자료 분석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각 연구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초심자의 관점에서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워크숍의 구성]

I. 질적연구의 개념과 특징

1.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차이
2. 질적연구의 목적
3. 질적연구의 특징

III. 자료 분석과 글쓰기

1. 질적 자료 분석의 과정
2. 질적 코딩
3. 글쓰기

II. 현장작업과 자료 수집

1. 현장작업의 중요성
2. 참여관찰
3. 심층면담
4. 문서분석

질적 연구 논문 작성법

정상원(춘천교육대학교)

정상원은 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의 역할에 대해 탐구하고 있으며, 현장 연구자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질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몇몇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다수의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 중이다.



〈이력〉

진주교육대학교 졸업(초등교육)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교육과정과 수업 전공)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교육과정 및 방법 전공)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사(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현)

본 워크숍에서는 질적 접근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쓰기 위해 연구자가 수행해야 할 기초적인 과업을 다루고자 한다. 최근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질적 접근을 통해 자신들의 현장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현장 연구자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자들, 특히 질적 연구 경험이 적은 초보 연구자들의 경우, 질적 연구를 훌륭히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과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워크숍은 질적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기 보다는 연구자가 실제 연구와 논문 작성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주요한 고민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될 것이며, 이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실제적 과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워크숍의 구성은 아래의 주요한 질문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숍의 구성]

1. 질적 연구자 무엇을 탐구해야 하는가?
2. 질적 연구의 연구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3. 질적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무엇을 시작해야 하나?
4. 질적 연구의 분석과 글쓰기는 어떻게 관련되나?
5. 질적 연구의 글쓰기는 어떻게 차별화되나?

컴퓨터를 활용한 질적코딩의 주요전략과 노하우

권향원(아주대학교)

권향원 교수는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공공정책대학원/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조직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방법론연구위원장,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연구방법론전문가 자문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다수 정부부처의 연구자문 및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연구설계론, 질적·양적연구방법론, 빅데이터기반 비정형자료 분석론, 공공조직론·제도론, 그리고 과학기술·산업분야 정책론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공공가치론』(2022), 『공공정책론』(2022) 등의 저서를 발간하였으며, 한국학술원상(2022) 등을 수상하였다.



질적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현학적이라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 현상학, 해석학, 근거이론, 사례연구 등 다양한 접근들에 대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논의 속에서, 초보 연구자들은 실제 연구현장과 “동떨어져 있다” 혹은 “멀다”는 거리감을 가지기 쉽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질적 연구자들의 실제 연구에 적용가능한 질적자료 분석 테크닉과 유용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집된 비정형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해 내기 위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질적코딩을 수행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초심자 뿐 아니라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여자는 개인 노트북 지참 및 Atlas.ti 소프트웨어의 체험판 이상의 버전을 설치 및 준비할 것을 권장

[워크숍의 구성]

1. '질적코딩' 이해하기
 - 연구목적에 따른 질적코딩의 유형
2. 컴퓨터를 활용한 '질적코딩'의 필요성과 유용성
3. QDA(Qualitative Data Analysis) 소프트웨어 이해하기
 - 3-1. Atlas.ti의 인터페이스와 논리구조
 - 3-2. 자료불러들이기
4. 질적코딩 수행하기
 - 4-1. 개방코딩
 - 4-2. 선택코딩
 - 4-3. 축코딩 / 네트워크 코딩
5. 자료 리포팅 및 주요한 노하우
6. 토론

질적 글쓰기

이재영(한국교원대학교)

이재영 교수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편집장을 11년간 맡고 있다.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박사과정 중 Klaus Witz 교수로부터 초상화법에 대한 질적연구 방법을 수학했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전공강의와 함께 질적연구에 대한 강의를 겸하고 있다. 초상화법과 질적연구를 활용한 다수의 박사 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질적 연구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글쓰기가 일상적인 언어습관이나 글쓰기와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는가? 질적 연구에서 글쓰기는 초보 연구자들에게만 난해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질적 데이터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연구 대상자인 인간에 대한 질적 이해의 차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인 질적 연구 글쓰기 방법을 인간 이해의 질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학습하고자 한다.

[워크숍의 구성]

1.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간 내면의 본질적(essential) 가치 이해의 방법 살펴보기
2. 질적 데이터에서 인간 내면의 본질적 가치 파악하기
3. 연구자의 질적 이해와 연구 대상자의 자각(awakening): 실제 없는 본질에 대한 탐색과 확인
4. 인간 내면 이해를 위한 feeling 파악하기
 - 4-1. 논리적 데이터 분석과 공감적 데이터 분석의 교차점에서 질적 글쓰기
 - 4-2. 코딩의 유익함과 한계를 고려한 질적 글쓰기
 - 4-3. 질적 글쓰기를 위한 지루한 준비 과정
5. 질적 글쓰기의 다층적 시점 고민하기: 연구자, 연구 대상자, 독자
6. 객관도와 신뢰도 그 이상의 질적 글쓰기
7.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질적 글쓰기

질적연구방법론 워크숍 개요 (4/22 토요일 16~18시)

워크숍 1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및 실제

홍영숙(중원대학교)

홍영숙 교수는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TESOL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캐나다 University of Alberta에서 Teacher Education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으며,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내러티브 탐구의 기초를 만든 Clandinin 교수의 지도학생으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에 대하여 전공하였다. 현재 한국질적탐구학회를 비롯한 질적연구 관련 학회 및 영어교육 관련 학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러티브 탐구와 박물관 교육(박물관 교육과 질적연구, 2015)>, <내러티브 교육과정 메이커로서의 교사의 삶(교사의 재발견, 2016)>이 있으며, 교사정체성 및 내러티브 교육과정, 교육사회학 등에 관한 다수의 내러티브 질적 논문과 방법론 관련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 2015> <관계적 탐구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2019> <내러티브 논문작성의 실제, 2020> 등의 기고 논문이 있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및 실제』 관련한 전국 규모의 워크숍/특강을 100회 이상 수행한 바 있다.



인생은 경험으로 구성되며, 경험은 이야기화될 때 의미가 부여된다. '인간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연구에서, 인간의 경험 이야기(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인간 경험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형성함으로써 인간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내러티브 탐구는 질적연구방법으로 그 자리매김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이해적 측면'에서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바탕 및 주요 개념, 용어 등을 중심으로 한 원론적 소개와 '실제적 측면'에서 내러티브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며, 각 구성 항목별 글쓰기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안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워크숍에서 다루어질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워크숍의 구성]

<이 해>

1. '내러티브 탐구'란 무엇인가?
2. '내러티브 탐구'의 철학적, 이론적 바탕
3. '내러티브 탐구'의 주요 개념 및 핵심 용어

<실 제>

1. 내러티브 논문의 구성
2. 내러티브 논문의 작성

생애사 연구

이동성(전주교육대학교)

이동성(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은 교육을 포함한 삶과 문화를 탐구하는 교육 학자이자 교사교육자이다. 그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자문화기술지, 생애사 연구, 질적 사례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담화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의 확산과 공유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질적 연구와 자문화기술지 2판(2020)』, 『작은학교가 희망이다(2018, 세종도서)』, 『생애사 연구(2015, 세종도서)』 등이 있다.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동시에 원시림처럼 새로운 질적 연구방법으로 남아 있다. 인간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생애사 연구는 방법적 독특성으로 인해 사회과학자들에게 다소 '위험한' 연구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 워크숍에서는 생애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생애사 연구의 개념과 방법, 글쓰기 전략과 실제적인 연구수행 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워크숍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워크숍의 구성]

1. 생애사 연구의 방법론적 개념과 발달: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2. 생애사 연구의 방법적 특징: "생애담을 넘어서 생애사 연구로"
3. 자료 분석 촉진 요소: "시간성과 함께하는 차원, 전환, 적응"
4. 연구결과 구성 및 제시 방법: "주제 분석, 구조 분석, 내러티브 분석"
5. 자료 수집, 분석, 글쓰기에서 저자의 역할: "내러티브 필터, 공저자"
6. 생애사 연구의 평가준거: "너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넓은 세상을 조명하기"
7. 생애사 연구의 글쓰기 전략: "너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
8. 생애사 연구사례 훑어보기: "아, 이렇게 쓰는 것이로구나!"

자문화기술지, 어떻게 쓰게 되는가?

김명찬(인제대학교)

김명찬 교수는 현재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질적탐구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2020-2022)했으며, 질적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100여 편의 학술지를 게재했다.

연구관심분야는 질적연구와 자문화기술지, 상담자의 자기성찰 및 성장 등이다.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자신의 이야기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재구성하여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자문화기술지를 처음 접하는 연구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이니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쉬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당혹감과 난감함, 막막함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자문화기술지를 쓰는 게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것이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문화기술지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숙고로부터 출발한다. 즉 자기성찰적 태도가 연구의 기반을 이룬다. 따라서 자문화기술지는 의지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성찰적 태도로부터 '쓰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사는 본 워크숍을 통해 자기성찰적 태도가 어떻게 내면화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량의 내면화가 자문화기술지 작성에 어떻게 동력으로 작용하는지를 구체적 예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워크숍의 구성]

1. 자문화기술지: '자기성찰'이라는 동력
2. 연구자의 자기성찰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 연구자의 자기성찰은 어떻게 자료화되는가?
 - 성찰일지
 - 인공물(이메일, 공문, 문자, 카카오톡 등)
4. 자기성찰을 촉진하는 환경으로서 대인관계적/상호주관적 경험

질적 연구를 위한 철학의 지평 넓히기 - 들뢰즈

성기현(한림대학교)

성기현 교수는 한림대학교 인문학부(철학 및 글로벌융합인문학 전공)에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미학회 사업이사, 한국프랑스철학회 출판이사, 한국현상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들뢰즈를 중심으로 현대프랑스철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관심 주제는 신체, 정서, 예술이다. 대표 저서로는 『들뢰즈의 미학(2019)』, 『프랑스철학과 정신분석(2022, 공저)』, 『현대철학매뉴얼(2023, 공저)』이 있다.



차이, 사건, 소수성, 리즘, 기관 없는 신체... 철학자 들뢰즈가 만들어낸 이 개념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회를 분석하는 필수적인 이론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들뢰즈의 철학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나 이미 접했으나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들뢰즈 철학의 역사적 배경, 문제의식, 몇몇 기초 개념을 익히고, 이를 질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데 이 강의의 목표가 있다.

[워크숍의 구성]

1. 68혁명과 철학

- 1) 현대철학의 방향성
- 2) 68혁명이 현대철학에 미친 영향
- 3) 들뢰즈와 과타리에 대한 소개

2. '자연주의': 흐름과 기계

- 1) 좁은 의미의 자연과 넓은 의미의 '자연'
- 2) '자연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두 개념: 흐름과 기계
- 3) 기계 개념의 확장: 사회기계

3. 분열자: 다면체로서의 인간

- 1) 분열자의 개념
- 2) 분열자 1.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자
- 3) 분열자 2. 코드와 영토를 가로지르는 자

포토보이스

오영범(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오영범 박사는 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공학 석사, 부산대학교에서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7년 출판한 개인 저서인 「교사 전문성과 수업: 질적 연구를 통한 실천적 접근」은 세종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지속적으로 교육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7편의 KCI 등재지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포토보이스는 참여적 행동 연구의 한 종류이다. 연구 참여자가 찍은 사진에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포토보이스의 핵심이다. 최근 사회복지학, 간호학, 여성학, 교육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포토보이스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크숍의 구성]

1. 포토보이스의 탄생 배경
2. 포토보이스의 개념 및 특징
3. 포토보이스의 이론적 근거
 - 3-1. 프레이리의 비판적 의식화 교육론
 - 3-2. 페미니즘
 - 3-3. 다큐멘터리 사진
4. 포토보이스의 연구 절차: Latz의 8단계를 중심으로
5. 포토보이스 연구의 타당도 확보 전략
6. 포토보이스 연구 적용 사례